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1월 29일 승인·고시했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1개 중앙기관 및 지자체(울산시·울주군)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1월 2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 1월 14일 산업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1월 10일 건설예정지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과 한수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APR1400(1,400MW급) 2기로 구성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되며, 올 9월에 본관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6호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7조 6,16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력·에너지공기업

2017년까지 20조 원 줄인다

한전, 발전6사 등 전력·에너지공기업이 오는 2017년까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약 20조 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채감축 대상기관인 18곳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이 줄이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3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전, 발전6사, 석유·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전력·에너지공기업은 19조 6,241억 원을 줄일 방침이다.

한전은 자구노력으로 오는 2017년까지 5조 8,330억 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는데,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정 등을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 절반 이상인 3조 3,031억 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자산 매각으로 1조 4,71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조 2,308억 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 중 한수원은 장기 투자설비에 대한 면밀한 점검·진단을 통한 교체시기조정과 원전준공시기조정 등을 반영한 사업조정으로 2/3수준인 2조 5,847억 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전회사의 경우 서부발전이 1조 6,0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발전(1조

3,200억 원), 남부발전(1조 1,293억 원), 남동발전(1조 878억 원), 동서발전(1조 66억 원) 등 발전5사는 총 6조 1,516억 원의 부채를 자구노력으로 줄일 방침이다.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기업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줄인다. 가스공사는 사업조정으로 8,711억 원과 자산매각으로 3,090억 원 등 총 1조 1,801억 원, 석유공사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자산매각만으로 1조 647억 원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업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산업부의 주요 정책의제



중의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분야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투자 계획과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시장 분야에서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새로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해외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윤상직 장관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활발한 창업과 신규투자로 일자리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모델별로 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 정책 패키지와 금융지원 방안 등을 3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에너지 신산업 분야 대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서

산업부, 이달부터 MW급

풍력설비 인증 시작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국내 인증이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열고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 3월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됐으나 대형 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했다.

산업부 송유중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전력·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해 국내 풍력산업 육성의 기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원전 비리 과징금이 현행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100배 늘어난다. 아울러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규제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징금 및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안위는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기로 했다.

원안위는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4개 RPS(신재생공급의무화) 공급의무 발전사의 의무공급량은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135만 3,000MWh를 포함해 총 1,157만 8,809MWh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말 공고한 2014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총 의무공급량은 252만 3,871MWh이며, 여기에는 태양광 21만 1,254MWh가 포함돼 있다.

남동발전의 총 공급의무량은 159만 6,736MWh, 중부발전은(151만 1,411MWh), 서부발전(151만 8,735MWh), 남부발전(177만 6,432MWh), 동서발전(146만 5,233MWh)다. 발전5사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각각 20만 5,749MWh다.

지역난방공사의 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21만 9,834MWh이며, 수자원공사(1만 4,883MWh), SK E&S(14만 3,069MWh), GS EPS(19만 5,470MWh), GS파워(11만 1,309MWh), 포스코에너지(32만 6,231MWh), MPC울촌전력(9만 2,535MWh)다. 지역난방공사 등 그룹Ⅱ에 포함된 7개 발전사들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공급량은 각각 1만 4,883MWh다.

지난해 상업운전을 시작한 평택에너지서비스의 총 의무공급량은 8만 3,060MWh이며 여기에는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6,930MWh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RPS 공급의무량은 산업부 공고 제2013-340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48호에 대한 개정(안)을 반영한 수치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이 첫 선을 보였다. 한전은 지난달 5일 한전 구리남양주 지사에서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 14개 발전사 RPS

의무량 1,157만 8,809MWh

한전,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국내 최초 준공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 이하 'SG 스테이션')이란 전력 계통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Photovoltaic, Wind Turbine), 전력 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전기차(EV) 충전장치와 건물 자동화시스템(BAS)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운영센터를 말한다.

이번에 준공된 SG 스테이션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스템, ESS,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배전반,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제어센터와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건물의 에너지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상황판으로 구성돼 건물 내부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돼 있다.

또한, 2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50kWh급의 ESS를 적용해 피크 전력 5% 및 연간 전력사용량의 10%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약 1,8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연간 12ton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6개의 참여 중소기업과 함께 ICT 융합을 통해 SG스테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신사업 모델 구현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전 조환익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SG 스테이션 구축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와 ESS, AMI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이 통합된 신개념의 에너지절감 사업모델로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전은 올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210개 한전 사옥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상가, 업무용 건물, 공장 등에도 활용하는 한편, 향후 해외시장 진출 사업모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전,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위해 발주하한제 확대 시행

한전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던 발주하한제를 올 2월부터 확대해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하한제란 한전에서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주요품목에 대해 월별 최소 발주물량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물품의 발주수량에 대한 하한선을 마련함으로써 물품의 예측 생산 및 매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해 시범운영시와 비교해 발주하한제 대상품목을 변압기, 개폐기 등 기존 6개 품목에서 금구류, 전선, 애자 등 총 2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주 보장비율도 월평균 계약수량의 50%에서 60%로 상향했다. 또한, 주요 저장품목 납품주기도 월 4회에서 2회로 간소화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물류비용도 절반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매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금운영 상의 여유가 없음을 배려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하반기에 일정 매출을 보장함으로써 원자재 확보, 생산계획 수립 등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관련 모든 분야로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간다.

한전은 지난달 17일 사우디 리야드 리즈칼튼 호텔에서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이하 'K.A.CARE')을 비롯한 다수의 사우디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초청해 '사우디 원자력 인력양성-엔지니어링 현지화 로드쇼'를 개최했다.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 아래 한국원전수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로드쇼에는 한국과 사우디 양국 정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해 양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및 엔지니어링 현지화 협력방안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펼쳤다.

한전 이희용 원전수출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사우디 산업계, 대학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규제기관 등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우디 원전사업에 대한 강한 협력의지를 피력했다.

한전은 중동의 대국인 사우디와의 전방위 원자력 협력 추진을 통해 사우디 정부의 원전정책에 부응하고 현지에서의 사업입지를 강화해 향후 예정된 사우디 원전입찰에 대비하고 UAE원전 이후 중동지역의 원전 수주 기반을 확실히 다져갈 계획이다.

## 한전, 사우디 원자력 전방위 협력 확대

한전, 동반성장 위한  
중소기업 현장 방문

한전 조환익 사장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위치한 협력 중소기업 (주)비즈로테크와 (주)광명전기를 찾아 한전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 사장은 양사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중소기업 경영진과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업공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평소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해 온 조 사장은 비즈로테크 경영진 및 현장직원들과의 환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전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한전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전은 앞으로 동반성장 선도를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낮추고 중소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건수 급증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2013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총 7,02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개년 평균 1,571건(전년도 2,816건 회신) 대비 약 4.5배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력거래소에서 허가 검토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 총 7,022건 중 6,944건으로 98.9%를 점유했다. 이어서 풍력 35건(0.5%), 소수력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 전지 1건 순서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검토가 급증한 요인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 수자원공사 및 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의무자들이 2013년도 총발전량의 2.5%(9,933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 시행 때문이다.

6차 수급계획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총 발전량의 10%(5만 9,210GWh로 전망)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연도별 의무공급량도 2013년도에 723GWh로 별도 지정된 사업환경에 기인해 사업자들의 허가검토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전기술, 美 ASME

## 원자력 인증서 취득

한전기술이 미국 원자력 기술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은 원자로계통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로설계 개발단이 미국 원자력 기술기준 권위 기관인 미국 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로부터 원자로계통 기기공급에 관한 ASME 원자력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ASME 인증은 원자력발전소 기기공급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인증으로서,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ASME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운영 등 18개 영역에 대한 검증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기기공급 품질보증 능력의 국제적 공인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원자로설계개발단 소속 기술진 4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구축하고 ASME 인증 취득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ASME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해 이의 운영 및 기술능력 입증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원자로 용기, 펌프, 밸브, 배관계통 및 노심지지 구조물 등 관련 시범사업도 수행했다.



한수원이 협력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정책 궤도를 전면 수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 석)은 지난달 5일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 기존의 일방적 '직접지원'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우선, 협력중소기업들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인력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에선 처음으로 협력기업 직원을 원전 현장에 배치, OJT를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한수원,

## 동반성장 패러다임 전환



또 협력중소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을 한수원 신입직원과 함께 공동교육을 시행해 협력기업과 상호 동반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해외시장으로의 동반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협력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원전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신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조석 사장은 5일 서울 삼성동 인근에서 나다에스엔비, 이투에스 등 우수 협력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을 초청,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석 사장은 “소통 채널을 확대해 앞으로 협력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급탄 이용 하이브리드석탄 기술개발 본격화

저급탄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석탄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기우)은 지난달 11일 서울 대치동 중부발전 본사에서 화력발전소용 저급탄 기술개발을 위한 하이브리드석탄 융합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이브리드석탄은 저급탄에 사탕수수, 당밀, 기타 바이오-오일 등 바이오매스를 첨가한 Two-in-one 연료를 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급탄 이용 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석탄 연구사업 공동 발굴 및 수행, 기술자문 활동,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의 경우 고열량탄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고수분·저열량의 저급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 및 설비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저급탄 이용에 따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발전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급탄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 하이브리드석탄 양산기술 확보 △발전단가 절감 및 발전효율 증대 △전략적 에너지자원 확보 및 석탄산업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절감 △하이브리드 석탄을 활용한 CO<sub>2</sub> 배출량 저감 및 RPS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최평락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이 하이브리드석탄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남동발전이 자재관리 비용을 줄이고, 관리 각 단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자재 관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Total Monitoring System, 이하 ‘TMS’)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동종 공기업의 자재관리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개발한 TMS는 생산과 판매, 자재 등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P)과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으로 분리해 관리하던 47개 계약자재분야 단위업무를 업무활용도와 연계성 위주로 분석해 통합한 것이다.

TMS를 이용하면 조달판정 등 16개 주요 단위 업무의 상세 정보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남동발전은 TMS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내외 감사와 본사인력 사업소배치 등 근무환경 변화를 진행하면서 축적해 온 업무능력과 계약자재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동종 에너지 기업의 자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이 시스템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스템은 체계적인 조달판정과 동일품목 동일 구매가 적용, 사후관리 강화로 합리적 구매의 정착과 대내외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남동발전 측의 설명이다.

남동발전, 계약자재 관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전원자력연료

이재희 신임 사장 취임

한전원자력연료는 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전 서울본부장 출신 이재희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이날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재희 신임 원전연료 사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한전에 입사해 30년 동안 삼척지점장, 서울지역본부 부분부장, 북부산지점장, 서울사업본부 북부지점장, 남서울본부 남부지점장, 서울본부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2012년부터 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를 역임한 전력산업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희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과 소통을 통한 창조경영 기반 구축과 성공적 신규사업추진으로 글로벌 회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전 임직원이 한 목소리, 하나된 힘으로 글로벌 원전연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재희 사장의 임기는 2017년까지 3년간이다.

LS전선,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시스템 시장 본격화

LS전선이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S전선(대표 구자은)은 지난달 7일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시스템인 ‘심플윈(SimpleWin)’의 사업 강화를 위해 LS사우타와 MOU를 체결하고,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LS사우타는 LS 그룹의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사업 전문 기업이다.

심플윈은 LS전선이 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음성과 데이터, 화상 데이터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통신 장애 발생시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 즉시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소수 글로벌 통신자재 업체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통신 배선자재 분야에서는 기술력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제품이다. 특히, LS전선의 심플윈은 해외 경쟁사 제품들과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에서 LS전선과 LS사우타는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시스템의 공동 마케팅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LS전선 윤재인 영업본부장(전무)은 “이번 제휴로 LS전선은 기존 B2B 중심의 영업망에 더해 LS사우타의 B2C 영업망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영업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심플윈과 같은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 촉진이 기존 데이터 케이블의 매출까지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의 유럽 자회사인 두산밥콕은 EDF에너지와 2030년까지 영국 내 원전 14기를 관리하는 장기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계약 대상 원전은 7개 사이트 총 14기(총 7,550MW)로, 던지니스 B(Dungeness B), 힌클리포인트 B(Hinkley Point B), 헌터스톤 B(Hunterston B), 하틀리풀(Hartlepool), 헤이샴 1,2호기(Heysham 1,2), 토네스(Torness) 원전 등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밥콕은 원전 가동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원전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게 된다. 초기 3년간 원전 서비스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수준이며, 전체 계약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다.

두산밥콕은 이번 EDF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면밀한 계획 하에 영업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원자로 유지보수, 점검 등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두산중공업, EDF와 영국 원전 서비스 공급 계약